

since 1986

SUNBO FAMILY

VISION 2015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4년 5월 15일

vol.124

World Best
Sunbo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저희 선보패밀리는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며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4 PSA 선보아카데미 “최고경영자 과정” 실시



지난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2014 선보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프로그램'(이하 '최고경영자과정')이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최금식 대표이사 이하 임원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기업 운영의 핵심 주제인 최고 경영진들의 조직 관리와 혁신, 그리고 임·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경영진은 책임감 있는 조직의 경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소통의 기술, 창의성, 인문학적 이해 등 많은 소양을 지녀야 한다. PSA(Privileged Sunbo Academy)팀의 빈틈없는 준비로 수준 높은 강사진과 콘텐츠를 구성하여 이번 커리큘럼이 최고경영자 과정에 부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 중 '소크라테스와의 점심식사'라는 특강에서는 '다수결은 항상 옳은지?'에 대한 화두로 현명한 1인의 판단이 다수보다 합리적일 수 있음을 주장한 플라톤의 에피소드를 들으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에서 강사 김수영 교수의 재치 있는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리더의 덕목을 흥미롭게 발견, 해석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PSA팀 최희승 차장은 "임원들께서 너무도 적극적으로 최고경영자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전 교육 과정을 함께 한 최금식 대표이사께서는

철학, 예술, 역사, 신학 등, 깊이가 있는 인문학적 주제가 매우 신선했고 경영자라면 꼭 지녀야 할 소양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덧붙여 기존의 딱딱한 직무교육에서 벗어나 매우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하십니다."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활동적인 참여 프로그램이 많았던 '선보글로벌챌린지'의 교육들과 '최고경영자프로그램'은 구성에 차이가 있다. 바로 강연과 토론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타이트한 일정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준 높은 질문과 토론으로 열기가 더해지는 모습에서 우리 선보의 임원진은 회사를 향한 마음과 자기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진은 오늘의 선보를 만든 주역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살리며 동시에 개개인의 노후를 선보의 미래를 위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단합 및 개개인의 자율형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인식하고 소통과 혁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앞으로도 '사람중심 경영'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 일행 우리 회사 방문



에로사항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사하구 구평동의 방파제공사와 다대동터널 도로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다대동 이면도로 정비, 기업 기술력 발전을 위한 부산국제기계대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조성제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기업을 직접 찾아가려운 곳을 굶어주고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상의의 존재이유'"라며, 각 분야에 걸친 기업애로 사항을 관련기관 및 부처에 건의하여 관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조성제 상공회의소 회장 일행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현장에서 청취, 해결책을 모색하는 간담회 참석 때문이다.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는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협의회 활동과 현재 사하구에 위치한 여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우리 회사 산소 발생기, 칠러 개발 MOU 체결



우리 회사는 5월 2일 본사 의전실에서 OTE, 퓨리텍, DESC와 함께 산소 발생기와 칠러(Chiller, 산업용 냉각기) 개발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존의 상용제품을 선박 내에 장착해 테스트한 결과 원하는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또한 선박 적용 시 기존 산소발생기와 칠러는 선박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즈를 축소할 장비를 개발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져 MOU를 체결·진행하게 된 것이다. 양사는 협약서를 통해 산소 발생기와 칠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모니터링 테스트 후 실제 적용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산소 발생기와 칠러 제작 기술이 상호 협력하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선박 설계 수정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장비로 큰 경쟁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는 5월 2일 본사 의전실에서 OTE, 퓨리텍, DESC와 함께 산소 발생기와 칠러(Chiller, 산업용 냉각기) 개발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존의 상

새내기 신입사원, PSA 선보 아카데미 입학



4월 14일(월), 15일(화) 양일간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PSA 선보아카데미 입학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약 40여 명의 새내기 사원들은 진정한 선보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PSA 선보아카데미 입학프로그램'은 신입사원들의 역량강화와 빠른 업무적응을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날은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집결해 경주 한화리조트에 도착, 우리 회사 이경식 팀장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강의를 끝난 후 자기소개를 하면서 아직은 어색한 동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팀을 구성했다. 팀별로 팀명, 팀구호, 팀가 등을 제작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일체감을 고조시켰다. 또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회사의 미래상'을 상상해보며 우리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되새겼다.

석식 후 경영진과의 대화 시간에는 자칫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임원과 신입사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선보가족이 된 걸 축하합니다. 우리회사의 강점은 강한 조직력과 책임감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개발을 통해 앞으로 조선평계를 이끌 리더가 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회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신뢰성을 높여주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고객만족과 프로직장인의 예절에 관한 전문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신입사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도전의식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신체를 심분 활용하는 게임형식의 미션이 진행되었다. 특히 김병진 강사의 '하이파이브 활동'을 통해 신입사원들은 함께 땀을 흘리며 더욱 돈독한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1박 2일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신입사원들은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동기들과 함께 즐겁게 소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차장-부장 직급 대상으로 PSA 글로벌 리더십 2차 교육 진행



우리 회사의 차장-부장직급 30여 명은 지난 5월 9일(금), 10(토) 이틀간, 경주 드림센터에서 '글로벌 리더십 2차 교육'에 참가했다. 4월에 있었던 과장직급 대상 '글로벌 리더십 1차 교육'이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 낸 것에 힘입어 이번에는 차장-부장직급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이 마련된 것이다. 이미 1차 교육에서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이었기에 참가자들의 기대 또한 컸다.

9일 아침 7시, 참가자들이 경주 드림센터에 입소하는 것으로 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비전을 설정하라, 감각을 깨워라, 파워의식을 선택하라, 의지 100%로 행동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석하라'라는 5가지의 큰 테마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소통감각지수를 일깨우는 '리딩반응게임', 연극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견시관', 대한민국의 중심가치를 통해 개인의 가치확장을 꾀하는 '글로벌 선보',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의지력을 높이는 '연단', 사회성과 리더십을 배양하는 '화합의 선보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습득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교육이 끝난 뒤 "소통의 부재가 조직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현명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한 직원은 "교육받기 전에는 이런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회의적이었다"며, "그러나 스트레칭과 명상으로 마음과 육체 피로를 풀었고, 특히 역할극을 보면서 부하직원들에게 왜 내 입장만 강조했을까 하고 반성했다"며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신입사원 멘토링 제도 'SunKey(Sunbo+Key people)' 시행

우리 회사는 2014년 3월 이후 입사자(경력사원 제외)를 대상으로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신입사원 멘토링 제도는 계장~과장급의 우수 선배들과 신입사원을 1대 1로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업무관련 도움과 더불어 조직생활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어 신입사원들이 회사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13일 열린 멘토링 결연식에서 16쌍의 멘토-멘티가 맺어졌다. 이후 3개월 동안 시행되는 멘토링 기간에서 주 1회 이상 멘토링데이를 운영한다. 멘토와 멘티 간 Tea Time, 문화행사참여,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매월 멘토링 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상위 1~2개 팀에게는 포상도 주어진다.

멘토링 제도를 제안한 사업기획팀의 이기환 대리는 "입사 초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인간적인 선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SunKey'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멘토링 평가 및 멘토링 활동비 등이 지원·제공되며, 멘토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고 말했다.

우리 회사의 SunKey List

순번	소속	직급	성명	멘토
1	설계팀	사원	김태우	최희승 차장(기획)
2	설계3팀	사원	김태호	
3	설계2팀	사원	편재웅	손정락 과장(자재)
4	설계3팀	사원	최용진	이수원 과장(자재)
5	설계3팀	사원	안병관	
6	설계3팀	사원	이연우	최우호 과장(설계2팀)
7	설계3팀	사원	황진하	
8	구평1 해양설계	사원	김형진	윤용남 과장(구평2생관)
9	설계5팀	사원	김남준	
10	설계6팀	사원	이도현	황영식 과장(플랜트)
11	구평1 해양품질	사원	정원진	
12	구평1 해양품질	사원	김도영	정성화 대리(해양품질)
13	구평1 해양품질	사원	이동현	
14	구평2 품질	사원	유정민	윤치호 대리(설계5팀)
15	영도 품질	사원	이 완	성창훈 대리(영도선각팀)
16	영암 생산관리	사원	김환수	오홍석 대리(설계 7팀)

SUNBO FOCUS 선보 포커스

인재경영에 답이 있다 -

우리 회사 설계팀의 기대주를 만나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와 비전을 공유할 만한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좋은 인재 구하기'뿐만 아니라 지켜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 결국 최상의 해답은 좋은 인재를 발굴해내고 또 얼마나 잘 육성하고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이 같은 '인재 경영'을 창사 이래 지금까지 기업을 지탱하는 경영전략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에 '인재 경영'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 회사 설계팀의 기대주 2인을 만나 보았다. 주인공은 설계6팀에서 2년 동안 일해 온 정혜진 사원과, 입사6개월이 갓 지난 설계5팀의 새내기 김운 사원이다. 정혜진 사원과 김운 사원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여 일간 진행된 공정만회 기간의 비상근무일수를 100% 달성했다. 이는 성실하다는 증거로 그들이 왜 기대주를 뽑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설계 6팀의 정혜진 사원은 어릴 때 아버지가 조선업계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성장했다. 조선설계에 관심이 유달랐던 정혜진 사원은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 2년차임에도 설계 실력을 키우기 위해 책상과 현장을 수시로 오가는 그는 일단 많이 보고 선배들에게 질문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

다고 한다. 이번에 회사를 이끌 기대주로 뽑힌 것에 대해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뽑힌 것이 쑥스럽고 그분들을 대표해 저를 뽑아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설계 5팀의 김운 사원은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 본사 옥상에서 동기 7명과 함께 입사 교육을 한 달 가량 받고 원하는 팀에 배정받아 열심히 업무를 배워나가는 중이다. 5년 후 자신의 모습에 대해 지금 맡고 있는 철의장 뿐만 아니라 조선 플랜트, 영업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고 싶으며, 글로벌인재로서의 꿈도 함께 키워나가기 위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주로 뽑혔으니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우리 회사 신입사원들은 회사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인 만큼 각 개인의 경력발전과 더불어 회사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멘토링제도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UNBO NEWS 선보뉴스

스트레스 날리는 '2014 프로야구' 단체 관람



지난 4월 16일 우리 회사 임직원과 가족 300여 명이 사직운동장 야구장을 찾았다. 매년 진행되는 프로야구 단체 관람을 위한 것이다. 프로야구 단체관람은 직원 복지 향상과 가족친화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우리 회사 단체관람객은 1루 측 응원석에서 롯데자이언츠 우승을 염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그러나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NC에 7대 8로 패하고 말았다.

경기를 관람한 한 직원은 "이번 프로야구 단체관람은 그동안 교류가 적어 서먹했던 임직원들이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를 통해 업무에서도 하나된 목소리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야구관람, 마라톤, 등반대회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마라톤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6월에는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근현대회화 100선' 전시회 관람이 준비되어 있다.

공정만회 비상근무, 성공적으로 마무리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여 일간 진행된 공정만회 비상근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공정만회 비상근무는 올해 상반기 각 공장별 업무 과부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전사 직원들은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까지 근무하며 공장별로 세운 공정만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업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당초 목표로 한 각 공장별 목표를 80% 이상 달성했다.

목표 100% 달성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한 달가량 이어온 공정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할 만한 성과였다.

이 기간 동안 ERP근태현황을 기준으로 비상근무일수 100% 달성자는 총 28명에 달했다. 이들에게는 포상금 30만원이 수여되었고, 96% 달성자 41명에게는 2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되었다.

5월 5일 어린이날 맞아 지역 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와 소통·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사하복지관과 다대복지관에 불우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각각 전달했다.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사하복지관 아동 15명, 다대복지관 아동 10명으로 총 250만원을 지원했다.

이 후원금은 아이들이 미래의 동량으로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평소 복지관 아이들이 필요로 했던 학용품과 장난감 등의 물품구입에 쓰였다.

복지관 선생님들에 따르면 5월 3일, 근처 마트나 아울렛을 찾아 어린이들이 평소 자신이 갖고 싶었던 물품을 직접 고르며 즐거워했다는 후문이다.

후원금을 전달한 전만석 계장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뜻 깊은 후원행사였다. 앞으로도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꾸준히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다대3공장 | 정남교 사원

「사고와 오작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작이 나지 않도록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AS에 시간이 많이 들고 본사에서 세 네시간이면 충분히 끝날 일 이 야드에 직접 나가면 장비, 인력등의 문제로 AS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수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선보가족이 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12년 2월 2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네요.
- Q.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배의 엔진에서 발생한 소음을 잡아주는 사일런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는 가용접이라 할 수 있는 취부를 담당합니다.
- Q. 현장에서 힘든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 Q.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급하게 오더가 떨어졌을 때 철야해서라도 납품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 대표이사님께서 현장에 자주 나오셔서 직원들을 독려하십니다.
- Q.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모든 부서가 다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고충은 없고 우리 회사가 더 크게 발전하여 더 큰 공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Q. 팀원들에게 고마운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조립반, 스트레이너, 사일런스, 이렇게 19명 정도가 같이 일하는데 정해져 있는 자기 일이 아니라도 힘들때 서로 도와줍니다. 항상 서로가 맡은 몫은 책임지고 해주기 때문에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 Q. 현장에 임하는 각오 부탁드립니다.
안전에 늘 집중해서 일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항상 다치지 않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지키면서 일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치면 개인도 불행해지고 회사로서도 귀한 인력손실을 입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사고도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 다대1공장 조재현 (05.29) 성재경 (05.14) 임재호 (05.03) 김진형 (05.24) 차성오 (05.13) 장국현 (05.19) 소 터 (05.14) 남희연 (05.03) 최홍렬 (04.17) 김혜림 (04.28) 한동호 (04.29) 최경호 (04.19) 류창명 (04.19)
- 다대2공장 박희수 (05.15) 김영철 (05.24) 박진호 (05.16) 박진석 (05.16) 장상권 (04.16)
- 다대3공장 지기환 (05.20)
- 구평1공장 여태웅 (05.20) 김승원 (05.12) 윤영술 (04.09) 김해선 (04.25) 남정화 (04.13) 윤종길 (04.03)
- 구평2공장 김한태 (05.05) 공금성 (05.10) 최임청 (05.19) 조상연 (05.01) 유금화 (05.20) 김정식 (05.20) 김주환 (04.13)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다대1공장 | 허 준 사원

「우리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자 칭찬받을 일입니다!」

히 일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는 같은 부서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대1공장 자재지원부에서 일하는 허준입니다.
- Q. 이번 호 칭찬 릴레이 주자로 선정되신 소감을 말해주세요.
우선 칭찬 주자로 뽑힌 것이 쑥스럽습니다. 형님, 동료들과 서로 도우며 열심히

- Q.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왜 칭찬 주자로 뽑힌 것 같습니까?
제가 자재지원부 막내라 제일 빨리 출근하는 편입니다. 그런 점을 보고 저를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 Q.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병역특례제도로 2011년 11월 1일에 입사해서 2년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재미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병역특례 기간이

- 끝나도 계속 선보공업에서 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Q. 팀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은 항상 작업 분위기가 밝고 화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부담감 없이 형, 동생하면서 가족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신나고 보람차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 Q. 다음 칭찬 주자를 추천해주세요.
본사계장반의 김대관 사원을 추천합니다. 가장 먼저 출근해서 하루의 업무를 준비하는 부지런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항상 팀원들을 잘 챙기고, 동생들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 영도공장 이정훈 (05.26)

입사 기념일

- 다대1공장 이영근 (05.01) 권두철 (05.25) 박수빈 (05.02) 박문영 (05.15) 민병철 (05.21) 고동욱 (05.01) 최환영 (05.02) 김동관 (05.11) 김형오 (05.02) 최재호 (05.02)
- 영업 박기덕 (05.14)
- 구평1공장 박상계 (05.01) 최기웅 (05.06) 권영길 (05.01)
- 영도공장 김진우 (05.01)

다른 그림 찾기 A와 B를 비교해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보세요.

